

「에벨링(G.Ebeling)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보 민*

서 론

볼트만(Rudolf Bultmann)이 신약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점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였으며 또 그가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신약성경의 저자들을 포함해서)이 어떻게 예수라는 그 어떤 분을 믿었던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볼트만에게는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자들의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신약성경의 해석학적인 중심문제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볼트만에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중시하였고, 그것을 그는 “Dass”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해서 볼트만은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믿었던 바”(Was)는 그 내용을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믿었던 바는 문제 그대로 Dass 였을 뿐이지 “Was”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과연 그들이 믿었던 바의 내용은 전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어떻게 믿었던가의 문제 보다는 그들이 믿었던 바의 내용,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의 내용, 또한 그 주님이 행하신 바의 사역의 의미, 이와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즉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믿었던가의 문제 보다는 그 주님의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같이 볼트만은 주님의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자들의 실존주의적인 태도를 중시하므로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볼트만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Wort Gottes)으로 중시한다는 에벨링(Gerhardt Ebeling)은 어떠한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심지어는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 부교수, 윤리학 전공

같은 철학자 역시도 소위 말씀(Wort)을 중시하고 있지 아니한가?

본고에서는 에벨링에 있어서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를 하이데거의 “말씀”(Wort)과 관련해서 규명하여 그 문제점을 밝힐 것이며 아울러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바른 방법으로 알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1. 에벨링에 있어서의 “말씀”(Wort)

에벨링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말씀(Wort)이란—그것이 누구의 것이든—시간적인 사건(Zeitliches Geschehen)으로서 일어난다(ereignen)는 점이다.¹⁾ 그러므로 그 말씀이 파생되어 나오는 바인 상황(Situation), 또한 그 말씀이 그 안으로 사건이 되어 들어가는 바의 상황, 또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바의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그 말씀에 속한다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말씀상황(Wortsituation)에 대응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책임적인 반응”(Wortverantwortung)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이 지니는 시간에서 경험을 통해 그 시간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곧 말이 관계되는 상황에서 책임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에벨링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sprechen können), 우리에게 언어(Sprache)가 전승되어져 있으며 미리 말되어져 있고, 또한 그런 식으로 우선 세계경험(Welterfahrung)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³⁾고 하였다. 인간이 가지는 언어의 필요성과 그 능력은 마침내, 세계가 시간으로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⁴⁾ 순전히 언어를 통해서만이, 나는 과거와 그리고 미래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인해 과거 및 미래가 나에게 현재적이 되며, 나는 내가 처해있는 나의 “지금”(Jetzt)의 뒤에도 되돌아 갈 수 있으며 또 앞으로 급히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벨링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이와같이 언어를 통해 현재를 넘어서 과거 또는 미래와 관계되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 때문에 그 언어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이다.

언어가 우리에게 이런 전체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면 언어 속에서 들려온다는 말(Wort) 역시도 단순한 언어적체계(Sprachsystem)속의 어떤 원소(元素)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며 그 말을 통해서 인간 자기자신이 현재 속에서 자기나름대로 자기중심적으로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일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곧 앞에서 말한, 언어가 먼저 전승되어서 그것에 대해 인간이 책임적 반응을 마땅히 일으켜야 한다는 점과 상호 일치한다. 그런 식으로 언어에 대해 반응을 일

1) Gerhard Ebeling, *Wort und Glaube* II, Tübingen 1969, p. 409.

2) *Ibid.*

3) *Ibid.*, p. 410.

4) *Ibid.*

으키는 일, 즉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말이 인간에게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이란 얼핏보면 인간이 그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만나는 동료인간(Mitmensch)을, “이해하는 일”(Verständigung)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⁵⁾ 즉 그런 이해하는 일이 동료인간들을 서로 잘 알게 만들고 그것이 언어가 일으키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하는 일은 인간들을 모두 계산가능한(berechenbar) 존재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인간들에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계산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미래의 진정한 의미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참 자유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에벨링에 의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잘못되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그와 같은 이해를 통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울러 인간이 언어에 대해 반응하게 되면서 말이 역(逆)으로 인간에게 진정으로 일으키는 일은, 미래를 유지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일인 것이다.⁶⁾ 인간이 이렇게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실재성을 말 속에서 유지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Gott)이라는 말을 통해 요구되어지고 의미되어지는 인간의 상황인, 기본상황(Grundsituation)에 처하게 됨으로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와 같은 때에 인간은 진정한 미래를 가지고 또한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벨링이 주장하는 것은, 말(Wort)이 인간에게 사건을 일으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어떠한 말들을 통해서라도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Sinn)는 말씀상황(Wortsituation)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상황(Grundsituation)이었다.⁷⁾

2. 에벨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와같이 “신”이란 말의 의미가 말씀상황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상황이라고 할 때 인간은 신에 대한 이야기함(Reden)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성격(Sprachlichkeit)에 부착되게 된다는 것이다.⁸⁾ 그럴 때에 신이란 말은, 인간이 자기의 언어성 속에서 스스로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말씀의 힘에 의해 산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런 말씀의 힘을 인간이 동경하는 것이다. 인간은 바로 자기의 언어성 속에서 본질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동료인간에게 향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에서 밝혀지고 있다. 인간이 언어성을 가졌으므로 말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가 말하게 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에게 먼저 이야기된 언어를 받았고 그 받은 말에 대해 대답을 하고자 한다는데서 기

5) *Ibid.*, p. 411.

6) *Ibid.*, p. 412.

7) *Ibid.*, p. 416.

8) *Ibid.*, p. 417.

인된다.⁹⁾ 인간이 언어를 갖는 본질의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동료인간인 인류 속에 파묻힌다는 면이 있으나 인간의 마음의 숨겨진 자기 스스로의 대화에 따른 언어의 비밀스런 변화가 무시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면이 있으나 우리는 모든 언어사건에 있어서 또 다른 깊은 차원(eine Tiefendimension)이 있으며 그 깊은 차원을 향해 “신”이란 말씀이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여기 깊은 차원이란 일반적인 말씀사건에 대한 끝 없는 연장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말들이 의존하는 바의 숨겨진(verborgen), 그리고 동시에 침묵된(verschwiegen) 말씀사건이라는 것이다. 사실 인간 자신의 힘의 표시인 것처럼 보이는 언어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해 버릴 수 없는 인식(Erkenntnis)이며,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다음의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란 “무엇이 도대체 말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능력을 주는가?”와 “그 말의 힘이란 무엇인가?”이다.¹¹⁾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대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에게 어떤 통찰(Einsicht)을 갖도록 할 뿐이라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은 책임적으로 반응한다는 방법으로 언어에 참여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토록 한다. 즉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을 가지므로(누가 그 힘을 주는지는 몰라도) 인간은 그의 말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진 말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그 말씀에 대해 먼저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뿐이다. 동시에 인간들은 두번째 질문을 통해, 비현재적인 것을 현재적이라도 하는 것은 곧 말씀의 업무(Sache)라는 점을 생각해 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현재적인 것의 “좁은 것”(Enge)에서 부터 해방되어 밖으로 부터 듣고, 또한 믿을 것으로 주어지는 바의 넓음(Weite)에로 들어가진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언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다는 듣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행동하는 것보다는 신앙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¹²⁾ 사실상, “신”이라는 말이 지적하는 바의 언어사건에 있어서의 깊은 차원이란 것은 인간이 이와같은 두가지 질문에 의해 자극되어지는 두가지 사실에 대한 통찰을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 같다. 인간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말씀이라는 것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순종하고 받아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곧 말씀상황(Wortsituation)이며 동시에 인간의 기본상황(Grundsituation)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스스로 행위하

9) *Ibid.*, p. 418.

10) *Ibid.*

11) *Ibid.*

12) *Ibid.*, p. 419.

13) *Ibid.*

는 자(Täter)가 아니고 他에서 부터 받아드리는 자(Empfänger)이며 비록 모든 사물들을 중립적인 거리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그는 스스로 중립성으로 도망해 버릴 수는 없는 자인 것이다.¹⁴⁾

인간은 서로 서로 세상 속에서 만나는 동료인간이면서도 그는 이런 관계 속에도 자기 자신이며 책임적인 단독자이고 성숙한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자기의 진정한 형편을 만들어 주는 실재성의 비밀(das Geheimnis der Wirklichkeit)을 말씀에 대한 바른 사용을 통해 의미 있고 유효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자인 것이다.

그래서 에벨링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상황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상황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역시, ‘신’은 곧 실재성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고 하였다. 신은 실재성의 비밀로써 그 비밀이 내용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질 수 없는 만큼, 신은 결코 밝혀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밝혀질 수 없는 비밀로서의 신이 우리에게 기본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 그런 기본상황에 처함에 있어서는 “신”이란 분이 그런 상황으로 부른다는 것인데 그 분을 누가 과연 신이라고 부르겠는가?

3. 에벨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한 “하나님” 그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일 뿐이라는 것이다. 에벨링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가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란 말씀의 의미가 곧 우리에게 우리의 기본상황에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와같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으로 주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말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날 무시되고 있고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하나님의 전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이상한 것으로 보이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이란 말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되면서 설교가 권위를 잃어서인가? 아니면 설교가 빈말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빈말이 되어서인가? 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란 오래된, 정확치 못한 前학문적인 언어에 관계된 것이고 자기들만을 위한다는 교회라는 group에만 관계되는 것으로 오늘날 낙인찍히고 있다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이런 판단을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한다. 즉 어찌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에

14) *Ibid.*

15) *Ibid.*

16) *Ibid.*, p. 421.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으로 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이야기 되는 것을 들은적이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속에서 만들어 낼 수가 있었을까?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종교의 sektor들의 소리로 오인될 소지는 너무도 크다고 하겠다. 사실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의 특징인 소위 기술(Technik)과 대중성(Mass)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있다. 그럴 때에 언어상황으로서의 인간의 기본상황이란 숨겨지도록 밀려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¹⁷⁾

실재성에 대해 기술적으로만 접하는 것은 실재성의 비밀과 그것에로의 인간의 관련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대중사회화되어 개인의 단독자로서의 책임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¹⁸⁾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전통 속에서 낡은 것으로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이런 기술사회의 대중화를 극복시켜 주어야 할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기독교가 세상에 참여하되, 기독교적인 말씀, 공동체, 실존등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음을 바로 알면서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타당한 봉사를 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하며 그럴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술사회를 극복하면서 나타난다는 말이 된다. 기독교는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이란 말씀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할 책임을 다할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⁹⁾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런 사회의 공개적인 생에서 어떤 특별한 유익이 작용하여 특정과별이 생길 수 있도록 단일적인 언어 규정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분쇄됨으로서이라고 한다.²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담시고 그것에만 관심하는 사람 역시도 잘못된 생각을 갖는 자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스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 또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염려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과 세계를, 향한 염려(Sorge)를 지니는 자인 것이다.²¹⁾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언어 속에서의 특별한 그 무엇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간은 자기들의 그 무엇을 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책임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구약성경을 대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성경적인 전승은 어떤 보수적인 요소를 지닌다.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오는 성경

17) *Ibid.*, p. 423.

18) *Ibid.*

19) *Ibid.*, p. 424.

20) *Ibid.*

21) *Ibid.*

적 전승은 놀라울 정도의 언어의 연속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그 연속성은 단순한 옛것에서 부터 지켜져 왔다는 의미의 보수주의(Konservativismus)에 의해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²²⁾ 즉 옛날에서 부터 전해 온 것이니까 인간 고유의 책임을 지워도 된다는 그런 식의 경향에 따라 신구약성경의 연속성이 보여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신구약성경으로 고정되어 있는 본래적인 언어사건은 계속 나아가는 전승의 확고한 대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씀 사건은 그 자체 끝없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전승사건이라는 것이다.

우선 성경이 신구약의 두개의 정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말씀사건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두개의 정경들은 하나의 System으로 각각 더해져서 하나가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연관을 이루는 하나의 전승사건의 순간들로서 서로 서로 관련이 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바로 거기에 신구약이 서로 일치가 되고 또 그 둘은 새로운 형편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계속되는 선포의 과정들인데, 다른 말로 해서 스스로 새롭게 하면서 언어를 보장함의 과정들인 것이다.²³⁾ 그러므로 신구약은 단순히 전승되어야 할 것만은 아니고, 그들은 두개의 전승의 과정으로서 그들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되어지는 선포의 책임(eine fortdauernde Verkündigungsverantwortung)을 지시하는 것인데, 그런 책임은 지나간 말씀을 통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²⁴⁾

우선 신구약을 통해 구약이 하나의 우주적 전승사건으로 함께 들어가지게 되었는데, 그 전승사건은 모든 언어어로 돌아가서 이들 언어들을 구원하는 필요한 말씀사건을 향해 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²⁵⁾ 성경적전승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낡아지는 것이 아닌 언제나 새로와지고, 또 특정한 것으로서 배타적이 아닌, 세계를 열리게 하는 것이고 또한 단일적이 아닌 언어창조적인(sprachschöpferisch) 언어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숨겨진 것이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전통이라는 것은 고유적인 현재에로 자유하는 그런 전통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 무엇에 의해 확인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간을 본래적 기본상황 속에서 자유한 자로 확인하면서 스스로 확인 될 뿐이라고 한다.²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승되어진 바는 그것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을 그 속으로 말해 놓게 되는 문맥(Context)을 지니므로서 하나님

22) *Ibid.*, p. 425.

23) *Ibid.*

24) *Ibid.*, p. 426.

25) *Ibid.*

26) *Ibid.*

27) *Ibid.*

28) *Ibid.*

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다시 말해서 전승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간에 대해 실제적인 현재적인 Context를 지니므로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적 상황에서 행하도록 만든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현재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기술사회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가 진정 그 스스로의 기본상황 속에 처한 자유한 인간으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을 행하면서 현재상황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바로 이런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가 전승되었으나 과거적인 전통에만 묶여져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서 신의 말씀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필수적인 것이 되고, 또 한편 하나님이 말씀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리내어 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말 역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씀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에벨링의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곧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소리를 발하는 자가 아니고 미리 주어진 언어에 따라 말하는 자라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그와같은 언어를 가진 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언어를 가진 자란 말은 모든 다른 인간이나 사물에 대해서 한번도 기계적인 즉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미리 있는 존재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또한 각자는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지니는 존재가 곧 언어를 가진 존재란 말이고 모든 것을 그와 같은 언어를 가진 자로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언어로 와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래 이와 같은 언어적 존재인 인간이 현대 기술 대중사회속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더 이상 언어를 가진 자로서 살지 못하고 기술에 따라 모든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즉각적으로 행해버릴 수 있는 이기적이며 편파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와 같이 변모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他와 세상을 위하고 그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라는 것이다.³⁰⁾ 역사 속에서 신·구약을 통해 전승되면서도 과거에 일률적으로 묶여 있지 않고 인간의 모든 언어로 들어가서 인간들로 하여금 세계와 이웃에 대해 책임적인 존재로 열려 있도록 만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간을 언어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29) *Ibid.*, p. 428.

30) 인간이 언어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Ebeling의 책 *Das Wesen des Christlichen Glaubens*, Tübingen, 1959, pp.178-187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라는 것만 관심하면서 묶여 있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인간이 되지 못하고 편파적인 비언어적 인간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他와 세상을 향해 책임적인 언어적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에벨링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 계시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로 깨닫고 또 거기에 감동되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는 성도로 살아 간다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가 못하다. 에벨링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국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그의 후기에서 중시하는 시적인 언어로서의 말씀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그 무엇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그의 전기의 작품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도 말과 언어를 논하지만 그것은 후기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의 전기의 말과 언어에 대한 생각은 다분히 볼트만의 신약성경해석에 영향을 미친듯 하다. 우리는 우선 그의 전기사상을 볼 것이다.

4. 前기 하이데거에서의 언어

하이데거는 우선 그의 전기를 대표하는 책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말이란 어떤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겨냥하고 거기에 맞추어진 인간의 소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아니 한다. 이점에서 그는 그의 스승이었던 후설(Husserl)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보다는, 의미가 오히려 말로 자라나게 된다고 한다.³¹⁾ 하이데거의 그와 같은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간존재는 세상 속의 현존적존재(그는 그것을 Dasein이라고 표현함)로서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이상은 아니지만 그는 그의 세상적 존재임의 의미를 관념적인 방법이 아닌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그의 세상 속의 존재(Sein in der Welt)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세상속 존재라는 것이 그의 이해의 대상이라고 할찌라도 객관적인 지식적인 이해가 그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의미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말할 것 없이, 인간의 세상속의 존재임을 그 인간자신과 더불어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세상속 존재임을 무엇이라고 객관적인 말이나 개념으로 설명내지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세상 속의 존재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자신이 실존적으로 어떠한 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고

31) Richard Schmitt, *Martin Heidegger on Being Human*, New York, 1969, p.76.

여겨진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에 있어서,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이해하는 인간실존은 그가 이미 세상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 선행되므로 가능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가 이해의 존재인 것은 아니며 이렇게 그가 이해에 있어서 선행되는 그 무엇을 지닌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미리 가짐”(Vorhabe)으로 표현하고 있다.³²⁾ 이런 식의 Vorhabe에 의해 이해하는 실존으로서의 인간존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이해하는 바를 형식화 또는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前존재론적(vorontologisch)인 것이라고 한다.³³⁾ 그러나 이와 같은 실존적인 인간존재는 세상 속에 이미 던져져 있는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를 형식화된 표현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前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외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바의 존재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발성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가 他에 의해서 미리 질문되어짐에 대한 대답으로서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의 질문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질문의 관점을 미리 가지고 그가 던지는 질문의 사항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특정질문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미리 봄”(Vorsicht)이라고 표현한다.³⁴⁾ 前존재론적인 실존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자기에게 이와 같이 他가 특정관점에 따라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의 이해하는 바를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설명(Auslegung)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그 무엇으로의 이해의 내용과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설명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함을 실제로 행함이 될 뿐이라고 한다. 단지 前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만으로서의 자신의 이해함(Verstehen)을—그 말은 이해함이라는 동작이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뜻임—이제는 존재론적으로, 다분히 이론적으로 개념과 형식을 따라 말이 되도록 옮겨 놓는 일을 통해 인간은 “설명”(Auslegung)을 행한다는 것이다.³⁵⁾

그러므로 여기의 설명 역시도 어떤 설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그런 자연 과학적인 의미의 설명이 아니다. 그 보다는 인간 자신의 실존의 모습으로서의 이해를 실제로 “말”(Wort)으로 옮겨 놓고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말로 옮겨 놓는다는 일이 그렇다고 인간이 즉흥적으로 또는 자의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타(他)에 의해서 특정질문을 쫓아 질문되어짐에 대한 해답의 일환으로 또한 질문하는 타인이나 그 질문받은 사람 당사자가 이미 결부되어져 있는 특정한 언어에서의 단어로 향하여 그 설명하는 일이 행하여 진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이데거는,

32) *Ibid.*, p.86.33) *Ibid.*, p.87.34) *Ibid.*, p.86.35) *Ibid.*, p.87.

인간이 특정 언어에 이미 관계되어져 있음을 “미리 파악함”(Vorgriff)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³⁶⁾

이와 같이 인간이 특정언어에 미리 관계되어 있음을 가리켜 인간은 언어적(sprachlich)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해하고 또한 설명한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따로 객관적으로 확립된 의미를 이해 또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세상속 존재임이 그 인간 자신의 이해와 설명과 함께 마침내 특정 언어 속의 말어로 발음되어져 나오게 될 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의미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설명하는 바이고 또 의미는 마침내 “말”(Wort)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인간과 더불어 “말”으로 자라게 된다는 의미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말어로 자라나서” 말로 발음되어(articulated) 마침내 형식화(formulated)되어질 수 있겠는가?³⁷⁾

사실 인간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는 어떤 독립된 개념으로 인간 자신에서 구분되어 개념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속 존재임은 인간에서 관념적으로 상상될 수 있는 인간의 본질(Essence)과 같은 것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세상존재임은 인간의 본질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실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으로서의 세상속 존재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실천적으로 하나되어 있으면서 그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때에 그는 개념적으로 자신을 형식 속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인간은 이러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말어로 표시하면서 설명을 행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실존적 존재의 의미가 말어로 담겨질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상 말어로 담겨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실존이 아닌 인간에 대해 상상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인간의 “본질”(Essence)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그 말에 인간 자신의 실존에서 이미 유리되어진 관념을 일단 담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곧 인간의 실존적 실제적 모습에서 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Verfalle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이야기하면서(reden) 말(Wort)을 입에 담고 사는 모든 생활 속의 인간은 위의 의미인 “떨어져 버린”, “타락한”인간이 아닐 수 없다.³⁸⁾ 이것이 곧 인간의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 인간이, 특별히 말이 담게 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통해, 즉 그 말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또 타(他)를 자기이익 추구의 희생물로 삼는 것이 흔히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인간은 자신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그 이

36) *Ibid.*37) *Ibid.*, p.90.38) *Ibid.*, p.206.

유는 자신이 세상속에서 타(他)와 더불어 있음을 망각하고 자신의 주위를 자신이 지배해야 할 주위세계(Umwelt)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은 자신을 어떤 특정한 객관화된 가능성에 개념적으로 일치시키고 그와 같이 자신을 일치시킨 일반화된 원리로서의 가능성의 관념에서 모든 다른 존재들을 파악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이끌어 옴으로서 그것들을 지배하고자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실제적인 모습에서 부터 유리된 객관화된 인간인데, 하이데거의 주장은, 인간이 그와 같이 잘못되게 객관화 된 인간임을 극복하여 실제적인 실존의 모습을 바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앞에서 말한대로, 인간이 前존재론적으로 이해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행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를 말어로 옮김에 있어서 그 말이 객관적인 내용을 담아 자신의 도구로 쓰이게 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 “이야기 함”(Reden)으로서 인간자신의 본질(Essence)을 일단 그 이야기의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간자신의 생각의 산물인 개념인 것으로 통상적인 말로 그대로 표현하지 아니 하고 자기의 “본질”이 곧 그 자신의 세상속 존재로서의 실존 그것일 뿐임을 나타내도록 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그의 언어 속에서 무슨말을 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인간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가 말(Wort)에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곧 하이데거의 전기 작품인 존재와 시간의 한계점인듯 하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 때에 자신이 세상속 존재로서의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잃어 버리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어떠한 해답을 주기 보다는 인간이 객관적인 개념을 내용으로 삼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인간이 자신의 것을 내용으로 담는 말을 하지 아니 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남의 말을 듣는 행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바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되는가? 말을 아니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다는 것인가? 아뭏든 前기의 하이데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 보다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간의 말은 객관적인 개념을 내용으로 담아서 인간 자신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이어서는 안된다는 해답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아니 한다는 것으로 인간이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를 진정으로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인간이 아무리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말을 아니 한다고 할찌라도 그 말을 아니 함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신의 실제적인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를 자신의 말에서 실제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이 전기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것, 즉 인

간이 자신의 실존적 존재의미를 바로 유지하는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전기의 하이데거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특정한 개념적인 내용이 있는 말을 객관적으로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개념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무엇을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을 통해, 즉 자신의 이미 이루어진 가능성에 따른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열려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 즉 자기 자신이 곧 가능성인 바의 그런 가능성으로서의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존재로서의 태도를 통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지니고자 함이 되므로 그것은 볼트만의 신약성경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기 하이데거는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의 후기작품에서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언어에 접근함으로써 인간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가 인간에게 말로 나타나질 수 있음을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의 작업은 곧 그의 시적언어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바로 이와 같이 시적(詩的)언어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존적인 인간의 모습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앞서 말한 에벨링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5. 후기 하이데거의 언어

이제부터 우리는 하이데거가 그의 후기에서 시적언어에 대해 어떤 접근을 강하게 시도했는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하이데거가 후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언어와의 경험을 행함으로써, 즉 언어(Sprache)를 말함(Sprechen)으로서 언어가 언어에 오고 또 사물이 언어에 오게 된다는 점이다. 한번도 말되어 지지 못했던 것이 언어에 옮겨지는 것이 어디에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언어가 적합한(geeignete) 말(Wort)을 선사하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경우 중의 하나가 곧 시인(詩人)의 경우라는 것이다. 또한 그런 식으로 시인은 그가 언어와 함께 이루는 경험을 고유하게 즉각적으로 언어에 가져와야 하는데에 이르게 된다.³⁹⁾

이렇게 시인의 언어경험으로 그런 경험을 언어에 가져온다는 말의 뜻은 결국 그것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언어적인 모습인 실존의 모습을 지닌다는 말일 것이고 그것은 곧 시인의 시작(詩作)이나 일반사람들이 詩분석, 이해함등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39a)} 그런 입장에서 하이데거는 시인 Stefan George의 “말”(Wort)이라는 제목의 시를 분석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소위 전기에 그가 처해 있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고 볼트만보다는 에벨링에게 영향을 입혔다고 보겠다. Stefan George의 “말”이란 제목의 시의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나는 슬프게도 부정(否定)하는 것(den Verzicht)을 배우

39) Martin Meidegger, *Unterwegs zur Sprache*, Stuttgart 1975, p.162.

39a) *Ibid.*, p. 164.

며 말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도다”(So lernt ich traurig den Verzicht : kein Ding sei wo das Wort gebriht)이다.⁴⁰⁾

하이덱거는 사람(이 경우는 시인)이 배운다는 “부정하는 일”(Verzicht)은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말과 사물(Ding)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Meinung)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말이 없는 곳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은 그러니까 그 부정하는 일의 대상이 아니라 말과 사물과의 사이에서 경험되어 지는 관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감을 명하는 것(Geheiss)이라는 것이다.⁴¹⁾ 다시 말해서 그 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슬프게 본래 내가 경험하던 말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견해, 즉 사물이 먼저 있고 그 사물에 대한 묘사로서의 말이 나중에 있다는 식의 말과 사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말이 없이는 사물이 없다는 진정한 관계에로 들어 가도록 명령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덱거에 의하면, 시인이 경험한 것은, 우선 말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사물을 그 사물로서 나타나게 하고 “현재적으로 있도록”(anwesen)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⁴²⁾ 시적인 말이 시인에게 스스로를 사물이 자기의 존재 속에 지니는 바로서 말해 온다고 한다. 한 마디로, 시인은 말의 굉장한 존엄성을 체험한다고 하겠다. 이런 말에 대한 체험을 통해 시인이 어떤 객관적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말한 대로 사물에 대한 말의 관계에 도달하는데, 이 관계란 사물과 말이 따로 따로 실체로서 존재하고 또한 그에 따라 그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의미의 관계는 아니다.

그 보다는 말이란 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관계성으로서 그 관계성으로 사물이 물 입되어지고 그로 인해 그 사물은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⁴³⁾ 결국 시작(詩作, Dichtung)을 행한 것은 이런 말의 존엄성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고(思考, Denken)함과 대단히 가까이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시인의 詩作을 통한 말과의 경험은 곧 말과의 思考하는 경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고하는 경험이란 사물의 존재의 근거를 묻는 것이 된다고 한다. 또 동시에 질문하는 것으로서의 사고함(Denken)은 곧 본질적인 것(Wesen)을 추구하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호소되어짐(Zusage)을 들음(Hören)이라고 한다. 이렇게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함에 들려오는(Zusagen)것은 한편 그것은 시인의 詩作에 의한 시적인 말(Wort)이면서 실제로는 언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언어의 본질적인 면”(Wesen der Sprache)이라는 것이다.⁴⁴⁾

인간들이 흔히 어떤 언어를 가진다고 할 때에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잘못

40) *Ibid.*, p. 164.

41) *Ibid.*, p. 167.

42) *Ibid.*, p. 168.

43) *Ibid.*, p. 170.

44) *Ibid.*, p. 176.

생각하는데 그 언어(Sprache)의 진정한 본질(Wesen)은 오히려 시적인 말(Wort)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호소해 오는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을 근본적으로 지속시키는 본질(Wesen)의 언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덱거는 “언어의 본질”(das Wesen der Sprache)이면서 “본질의 언어”(die Sprache des Wesens)인 바가 시적인 말(Wort)을 통해 호소해 오고 그것을 듣는 것이 곧 사고함(Denken)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시적인 말을 실제로 말로 옮기는 일을 하는 시작(詩作)과 그 시적인 말을 듣는 사고함(Denken)은 서로 가까와 지도록 되는 것이라고 한다.^{44a)}

하이덱거는 말하기를, 우리가 시인이 詩作을 통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詩作과 思考의 이웃성(Nachbarschaft)에 머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웃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⁴⁵⁾ 시적인 말 앞에서 생각하는 인간이란 시적인 말이 지시하는 그 어떤 다른 객관적인 대상을 향한 객관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말과 함께 생각하면서 인간 자신이 이미 머물러 있는 그곳에 되돌아 간다고 한다.⁴⁶⁾

인간 자신이 이미 있는 그 자리로 되돌아 간다는 말은 인간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가 있어야 할 방법으로 있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로 여기 “인간이 있어야 할 방법으로 있다”는 말은 인간은 자신의 자리에 있기는 하면서도 그 방법은 자신의 실제의 자리에서 떠난 방법, 즉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 기계론적이고 객관주의적인 방법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인간이 있어야 할 방법으로 자기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시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존재함을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세상속 존재임의 의미를 알고 또한 생각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사물의 존재함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언어의 본질인 시적인 말이 “호소하는 것”(Zusage)을 들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인간 자신의 존재를 포함한 모든 사물의 존재를 존재하게 해주는 바가 곧 “말”(Wort)이 되는 것이고 그 말 자체는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⁴⁷⁾ 즉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자를 존재하게 해준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인간존재를 위시한 모든 사물의 존재를 하나의 객관적으로 고정된 존재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물로 하여금 그 자체가 머물고 있는

44a) *Ibid.*, p. 184.

45) *Ibid.*, p. 190.

46) *Ibid.*, p. 190.

47) *Ibid.*, p. 195.

48) *Ibid.*, p. 201.

그곳에로의 길에 있도록(*be-wägen*)한다⁴⁹⁾고 말한다. 그것은 그말이 사물의 존재가 무엇이어서야 함의 답을 주기 보다는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를 제시하므로 사물들이 그 방향을 따른 길에 있으면서 사물들의 존재함을 지니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이와 같이 사물이 그 존재를 지니도록 한다는 시인의 말은, 그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곧 언어의 본질이면서, 본질의 언어였다고 했다. 시인의 말이 먼저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도구로 여겨지는 언어의 피상적인 모습이 시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

여기 본질(*Wesen*)이라는 말은 실제로 여기에 있음(*anwesen*)의 의미로써 그것은 곧 언어가 어떤 형식이나 궤모양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함을 말하는데 언어의 실제로 어떠함이 곧 사물들로 하여금 존재를 지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언어의 “본질” 즉 “어떠함”은 실제로 어떠하다는 것인가? 그것은 곧 “본질의 언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것은 곧 시적인 말을 통해 나타나는 언어는 그것이 본질의 언어, 즉 모든 것의 존재함에 같이 있어서 모든것으로 하여금 그들의 있어야 할 장소(즉 이미 있으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있어야 할 그 장소)를 향한 길에 있게 하는 언어라는 말이 된다.⁵⁰⁾

다시 종합해서 그의 후기의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객관적인 내용의 말을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실존적 존재의 의미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기에서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언어가 일상의 인간의 도구가 아님을 나타내는 시적인 말(*Wort*)을 詩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고(이 때 詩作을 한다는 것도 시적인 말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고 또 시적인 말 그 자체에 대한 반응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 말을 듣는 사고함(*Denken*)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향한 길에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바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에벨링이 볼트만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결론이다.

5. 결론 : 비판적 평가

지금까지의 논의의 방향은 에벨링의 “말씀”과 하이데거의 “말씀”을 따로 따로 취급하여 제시하는 식이었다. 이제까지 나타난데로 이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신학자로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철학자로서 각기 다른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대단히 상호유사하며 서로 비교가 된다.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중시하면서 에벨링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에벨링이 “신이란 말”을 쓰는 것

49) *Ibid.*, p. 201.

50) *Ibid.*, p. 201.

과 하이데거가 “말의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대단히 유사한 작업이라고 하겠으며 또 에벨링이 “신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이데거의 “본질의 언어”와 일치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에벨링이 볼트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전기를 버리고 그의 후기를 따르게 되었다는 말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전기가 인간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스스로 언어 사용을 조심(?)하므로서 이루고자 했고 그것을 볼트만이 성경해석에 도입했다면 하이데거의 후기 역시 인간이 시인의 말이라는 인간의 말을 이용해서 실존적인 모습을 지니고자 했을 뿐이다.

그 시의 말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이 결코 인간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더 깊고 초월적인 그 무엇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본질이라는 것을 따로 초월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역시 인간의 언어가 행하는 바 그 무엇으로 밖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세상속 존재”, “실존적 존재”등의 의미를 인간의 말함을 통해서 끝 없이 추구했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함은 아니었고, 에벨링 역시도 그와 같은 작업을 본질(*wesen*)이라는 말 대신에 “신”(Gott)이란 말을 대치시켜서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이데거에서의 본질(*Wesen*)이란 것은, 언어나 말을 통해 인간이 그것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었던 것처럼, 에벨링의 “신” 역시도 그 신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그 분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에벨링의 입장 역시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강조했다어도 그런것을 별로 강조하지 아니하는 볼트만의 입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인간 스스로의 실존적인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작업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항상 성경을 바로 보는 견해일 수는 없고 거기에 함정이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분의 뜻에 따라 바로 깨닫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인간이 얼마나 실존적인 모습을 지니는가는 성경해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먼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분의 뜻도 먼저 알게 되어야 할 것이다. 에벨링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그 약점이 노출된다고 하겠다. 즉 그의 “신이란 말”과 “신의 말씀”은 둘다 우리가 그 존재 여부를 믿고 아는 성경의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이란 말”이 인간에게 어떤 초월적인 권위를 진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신이란 말이 어떤 인간이 행한 말이 아닌 “신의 말씀”으로 추대(?)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신의 말씀”을 발하는 신이 누구인가가 확립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큰 것이다. 그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인간에게 “신이란 말”로 들려질 때의 그 들리는 말이 내용으로서의 신일 뿐인데, 그 신이 또 진정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대로 신이란 말씀이 “신의 말씀”이어야 할 뿐인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순환의 논리일 뿐이다. 이런 공허한 순환은 진정으로 초월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드리

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내용이 없는 순환의 논리를 전개시키면서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생각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연다는 것이 될 뿐이다. 그러나 그런 공허한 순환의 논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신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인간이 자신을 연다면 그런 논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열기때문에 여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에벨링에 있어서의 “신의 말씀”들은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생각이라고 자부하는 듯 하다.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원하시는데로 성령의 도움으로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서 신자의 세상 속에서의 이웃과의 생활이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나타날 때에 볼트만이나 에벨링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의 올바른 이웃과의 조화의 모습이라고 할 실존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촛점 맞추어진 새로운 성경해석을 꽤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성경해석을 행하는데 대한 책임이 우리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없는가? 즉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서도 계속 이기적인 물질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나 같은 보수주의자에게 그 책임이 부분적으로나마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Bibliography

- Ebeling, G., Wort und Glaube II, Tübingen 1969.
 _____, Das Wesen des christlichen Glaubens, Tübingen 1959.
 Schmitt, R., Martin Heidegger on Being Human, New York, 1969.
 Heidegger, M., Unterwegs zur Sprache, Stuttgart, 1975.